

# 연중11주일 감사성찬례

전례곡 C곡 집전 천용욱 신부

## 시작예식 · 말씀의 전례

입 당 성 가	.....	성 가	254장
죄 의 고 백	.....	기도서	244쪽
기 원 송 가	.....기 리 에	성 가	80장
1 독 서	.....창세 3:8-15	말 은 이	
2 독 서	.....2고린 4:13-5:1	말 은 이	
성 시	.....시편 138편	다 함 께	
복 음	.....마르 3:20-35	말 은 이	
설 교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사 제	구균하
사 도 신 경	.....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말 은 이	

## 성찬의 전례 · 파송예식

봉 헌 성 가	.....나 오 미 회	성 가	514장
성 찬 기 도	.....제 1양식	기도서	257쪽
성 체 성 가	.....	성 가	605장
축 복 기 도	.....	집 전 사 제	
파 송 성 가	.....	성 가	452장

## < 감사성찬례 및 주일봉사자 >

구 분	이번 주일(연중11주일 6월 13일)			다음 주일(연중12주일 6월 20일)		
	9시	11시	2시	9시	11시	2시
집 전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설 교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독 서	이순경	박계자	김재현	정삼임	김예중	박남미
	윤지훈	이정숙	성하준	김태영	이성빈	김민경
교회와세상을 위한 기도	김태영	김태영	성우진	김경아	한재업	천윤우
실 자 가	박해웅	차기성	-	윤용환	이용해	-
청 소	안드레회(1조) 6월19일 신원종 이종환 차기영 이성식 한재업			안드레회(2조) 6월26일 세남철 윤선구 박영수 유권열 유인환		

## < 다음주일 6월 20일 연중12주일(나해) >

독서/복음	사무상 17:32-49 / 2고린 6:1-13 / 시편 9 / 마르 4:35-41		
설 교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성 가	입당 552장	봉헌 450장	영성체 602장 파송 488장

## 다음주일 암송구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마르 4:39)

## 시편 138편

- 주여, 내 마음 다하여 감사기도 드립시다.  
|| 당신을 모시고 서있는 이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 거룩한 당신의 궁전 향하여 | 없들려  
|| 인자함과 성실함을 | 우러르-이며
- 당신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시다.  
||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 퍼졌습니다.
-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들어 | 주시고  
|| 힘을 한껏 북돋우어 | 주셨습니다.
- 주여, 당신의 언약 말씀을 | 듣고서  
||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당신께 감사노래 | 부릅나-니다
- 그들이 주께서 밟으신 길을 찬 | 양하며  
|| “주 그 영광 크시다” | 노래합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기-리-고-영 | 원히 아-멘

## 기도의 향

- + 교회를 위하여  
○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 아프고 약한 이웃을 돌보도록  
○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도록  
○ 배우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 + 가정을 위하여  
○ 모든 가정이 니자렛 성가정을 본받도록
-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 남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 환 자 한부수 손정자 박길자 강보경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이순환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중주  
신화석 신정자 고 김금영하 객손연
- + 임신부 강서린 정새별
- + 군복무 전호중 전필중 김건우 조용현 이준형 송준석
- + 유 학 이재성(독일)
- + 장기출장 박지혁(미국) 김슬기(미국) 이재동 윤상기(미국)  
서한일(캐나다)
- + 별세故 박도록

# 교 회 소 식

## <주일 감사성찬례 참여를 위한 지침>

- 1) 입장 전에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검사하고, 창석자 명단을 꼼꼼히 적습니다.
- 2)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씻습니다.
- 3) 표시된 자리에 앉아서 성찬례를 드립니다.
- 4) 영성체는 성체만 영하고 보혈은 영하지 않습니다.
- 5) 성찬례 전과 후에 교회 안팎을 소독합니다.
- 6) 애찬과 단체별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일감사성찬례는 세 번에 나눠 봉헌합니다(오전9시/오전11시/오후2시). 성전 안에서는 표 시된 좌석만 이용해 주십시오.

## ◆ ‘365 성서통독운동’

[365 성서통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요. 매일 전달되는 문자와 카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10,000원)

## ◆ 아침기도 안내

매일 오전5시50분에 드리는 아침기도에 참석해 주십시오. 기도 후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묵상 길잡이’와 ‘기도 의향’을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 드립니다.

## ◆ 강남교구구 성직자 월례모임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오전10시~12시  
방법 온라인

## ◆ 6월 교회위원회 결과

-액추감사주일[7월4일(연중14주일)]  
-성전 십자가 위치변경 의견수렴 후 7월 말 결정  
-신학생 기숙사비 지원(학기당 100만원)  
-하남교회 지원

## ◆ 강남교구구 하남교회 지원

교회내부에 설치된 복층구조물에 대한 하남시청의 철거명령으로 비용(200만원 소요)이 발생했습니다. 교무구는 하남교회를 돕기 위해 교구구 기금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구구 각 교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 제단 꽃 봉헌 안내

제단 꽃봉헌 받습니다. 사무실 앞에 마련된 신청표의 원하시는 날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내용을 쓰시고 봉헌해주시요.

## ▶ 활동단체 소식

### + 어머니회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미역 1kg(1박스) 2만8천원  
-서리태 1kg 1만5천원 -보리쌀 2kg 1만2천원  
-참기름 1병 1만원 -들기름 1병 9천원  
-엿기름 600g 4천원 -멸치 1박스 1만7천원  
-매실액기스 2L 1만원 -된 장 2kg 1만3천원  
-순창매실고추장 2kg 1만5천원

## + 교회학교 교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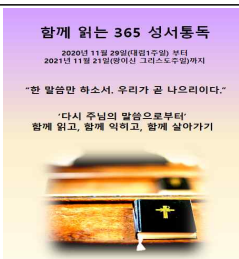
일시 2021년 6월 20일(다음주) 2시 성찬례 후  
장소 2층 성전

## ▶ 교우 소식

### + 떡 봉헌 이난희

### + 생일을 축하합니다!

장기현(13일) 신명식 이충웅(14일)  
공현정(15일) 이순경(16일) 이순환(17일)



##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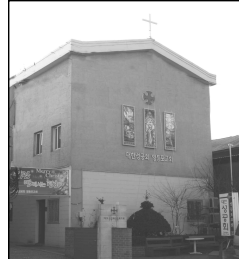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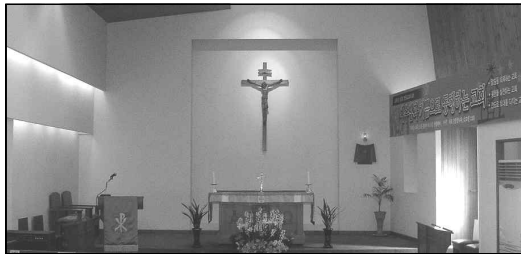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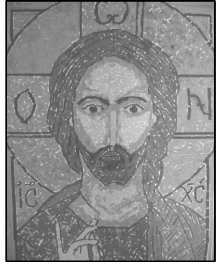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2020. 11. 29.(대림1주일) - 2021. 11. 21.(영광신 그리스도주일)

구 분	참 석	봉 헌	금 액	월정집일조	강수옥 김영대 김중희 박영수 박해웅 서세륜 신명식 손갑호 송이경 윤길자 윤범기 윤선구 이상식 이순경 이용해 이정주 이충웅 정영목 정정호 주애다 차영호 최효은
감사성찬례		월정집일조	1,470,000		
주일	107	주정현금	430,000		
아침기도	18	교회학교	11,000		
		감사헌금	580,000		
		주일헌금	23,000		
		성소계발			
합 계	125	합 계	2,514,000		
				주정현금	김경아 김경찬 김삼송 김요한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신희숙 유희주 윤영옥 윤영자 윤옥량 이경희 이성빈 이은미 이정숙 이종환 장분순 전병도 정명옥 정상임 정은숙 주애다 주창남 주창순 한부수 한혜지 한홍락
				감사헌금	고창현(생활5만) 김복근(생활5만) 송남해(생활3만) 송미경(가족건강5만) 이윤-내(생활10만) 이은미(가족건강5만) 이재동(꽃봉헌[이순환생활]5만) 이정창(생활10만) 정명옥(건강10만)
				특별헌금	윤영재(관구발전5천)
				성소계발	

<기간 5/31~6.6>

<헌금기간 2021.5.31~6.6>



성 공 회

영 등 포 교 회

성공회(聖公會 Holy catholic church)는  
하나이요, 거룩하고(聖), 보편되며(公), 사도로부터 이어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會)입니다. 성공회는 믿음의  
기초를 성서에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초대교회  
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선교로 1890년에 설립한  
대한성공회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성공  
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신자는 164개 국가에  
약 1억 명입니다.

성공회 영등포교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남교무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1966년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 설립되  
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선교정신은

- 첫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둘째, 새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합니다.
-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넷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섯째,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의 다섯 가치를 지향합니다.

1.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2.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3. 아프고 약한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
4.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5.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 일 및 주 간 모 임

-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 및 주간의 모든 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 \* 주일 감사성찬례는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 \* 11시 감사성찬례는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채널

찾아 오시는 길



#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 크리스토퍼

2021 교구표어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교회표어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은사공동체”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장마처럼 자주 비를 뿌리는 날씨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위가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 듯합니다. 알게 모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보노라면 인간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1독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뻔뻔스러움을 마주합니다.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열매를 먹고 눈이 열린 아담과 하  
와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찾으실 때 부끄러워 몸을 숨깁니다. 이를 보시고 먹지 말라던 열매를 먹은 줄 아신 하느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찌다가 그리워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진노를 피하려 동반자인 서로에게 탓을 돌립니다.

2독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  
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고난과 역경이 대부분은 하느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는 점을 알려 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손  
에 맡겨져 있기에 일회일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섭니다. 길으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걱정한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에 흠집을 내는 예수님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한편에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탓을 돌려서 자신들에게 향한 주의 사  
람들의 마뜩지 않은 시선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찾아온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고 하시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고 행하  
는 당신을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이유로 막아서는 이들은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말  
고 나아가 하느님을 내가 원하는대로 움직이려 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  
하고 귀기울여 듣고 행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뜻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구분 짓고, 상대방을 방패로 삼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미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느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  
단으로 여기는 마귀의 권세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불릴 수 있는 이들인지를 돌아봅시다. 하  
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

<b>서울교구장</b> 이경호 주교 <b>관할사제</b> 천용옥 010-4123-7357 <b>보좌사제</b> 구균하 010-3460-7382 <b>신자회장</b> 김중희 010-5472-0529 <b>사제회장</b> 차기성 010-4339-5233 <b>보혈조력</b> 박해웅 신환중 윤영욱 윤용환 이용해 이종환 차기성	<b>원로위원</b>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종웅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b>교회위원</b>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b>성가대</b> 지휘 김민숙 찬장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b>제단꽃꽂이</b> 이경희 이난희	(07299) <b>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b> <b>전 화</b> 2671-6290 2633-8877(팩스점용) <b>홈페이지</b> <a href="http://www.stchristopher.or.kr">www.stchristopher.or.kr</a> <b>e-mail</b> <a href="mailto:ydp@anglican.kr">ydp@anglican.kr</a>
<b>기업은행 083-082654-04-015 예금주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b>		